

순천시,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공모 선정

총 사업비 6억원...전기차충전소 불법주차 스마트 대응관리 솔루션 구축 사업 추진

순천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는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챌린지'는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규모에 따라 시, 타운, 솔루션분야로 나누어 공모한 가운데 순천시는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분야에 선정됐다.

최근 정부의 저탄소,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매년 전기차등록이 급증하는데 반해, 아직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아 충전소 내에 일반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는 시민의식 향상과 불법주차로 인한 전기차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전기차충전소 불법주차 스마트 대응관리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비는 총 6억원(국비 3억 시비 3억)으로 시에서는 '전기차충전소 불법주차 스마트 대응관리 솔루션'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기차충전소에 주차시 전기차 여부를 자동 식별해 일반차량이 주차차이에는 '전기차 충전소이므로 다른 주차구역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하고, 계속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기능을 제공하며, 시스템 전

반에 대한 상시 자가진단을 통해 장애 발생시 신속 복구가 가능한 스마트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다.

순천시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획일적인 법집행에서 탈피해 단속 이전에 사전안내를 통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전기차 충전소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민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울포해변서 여성단체 회원 직접 재배...오는 9월까지

보성군은 지난 5월 30일부터 울포해수농산물센터 옆 주차장에서 울포해변과 녹차밭 등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다.

직판장은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여성단체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제철 농산물인 오이, 가지, 호박, 된장, 블루베리, 참깨, 고춧가루 등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관광

객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계획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농·특산물 생산하고 차별화 된 판촉 활동을 통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로 개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울포해변 직거래장터 운영시간 문의는 보성군 화천면 산업수상계(☎061-850-8420)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확대...19일까지

광양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 업소 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2차 공고하고 5일부터 1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설개선 지원사업 1차 공고에서 50개소를 선정했으며,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25개소를 추가로 선정받는다.

이번 2차는 25개 내외의 소상공인 업소를 추가 선정해 간판 교체와 내부 인테리어 개선, 노후 장비 교체 등 업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제3회 남중권 문화예술제...동서화합의 장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권오봉 여수시장, 이하 '남중권협의회')는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경남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제3회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회식은 지난 1일 16시에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및 전 시설에서 남해안남중권 시장·군수, 문화예술인,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행사, 지역 문화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이번 예술제는 (사)한국예총사천시지회(지회장 김용주) 주관으로 남중권협의회 9개 시·군 문화예술인의 작품(한국화, 서양화, 서

예, 사진 등) 160여 점을 전시함으로써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세계를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9개 시·군 단체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머물러 퍼포먼스를 하며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남중권협의회 권오봉 회장은 "문화예술제를 통해 영호남 예술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고 남해안 시대의 상생번영과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여수시 음식점 7곳, '남도음식명가' 선정

광장미가·경도회관 여천점·꽃돌계장 1번가·대성식당·오죽헌·한일관·풍산식당

여수시는 전라남도가 지정하는 2020년 '남도음식명가'에 관내 음식점 7곳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남도음식명가란 지역의 향토성과 맛을 대표하면서 전통음식을 보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전라남도가 전문가의 철저한 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인증하는 전남

의 대표 맛집이다.

음식 맛·서비스·가격·편의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해 2년마다 지정한다.

선정된 음식점은 서대회·장어탕 전문 음식점 광장미가, 하모유비기와 하모회를 자랑하는 경도회관 여천점, 여수식 음식을 고집하는 꽃돌계장 1번가, 삼치회가

유명한 대성식당, 해물한정식 전문점 오죽헌과 한일관, 아구찜이 일품인 풍산식당이다.

남도음식명가로 선정되면 출입구에 남도음식명가 표지판을 부착하며, 전라남도에서 제작한 홍보책자에 수록해 도내 관광협회, 관광안내소, 외식업협회, 호텔&리조트 등에 배부한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시 관계자는 "남도음식명가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위생적인 음식문화 개선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광양시의원들, 포스코 지역사회 갈등 해결 촉구 기자회견

성암산업 노사 갈등·환경단체 활동가 고소 건 등 해결 요구



광양시의회의원들은 최근 광양제철소 하도급 회사인 성암산업의 노사 갈등 문제와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물질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에 훼손으로 환경단체 활동가를 검찰에 고소한 건과 관련해 포스코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

지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광양시의회 이형선, 백성호, 조현욱, 서영배, 박말례, 정민기, 최대원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71명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성암산업

이 2017년부터 노사 갈등과 고용 불안 장기화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광양제철소 경영이 넘어 걸맞게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책임 있고 통 큰 행동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환경단체의 환경 개선 요구 과정에서 데이터의 오류와 포스코의 정보 제공의 한계에서 발생한 오해를 악의적인 비방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품격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대응적인 자세로 시민단체와 관계 회복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줄 것"을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